

# 조선시대 모시 생산지와 저산칠읍(苧産七邑) 모시제작기술의 특징

공 상 희\*

##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모시 생산지와 저산칠읍의 형성
- III. 저산칠읍 모시제작기술의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 저산칠읍(苧産七邑)은 조선시대에 모시[苧, 苧布]가 많이 생산되는 충청남도 서남부의 일곱 읍을 통틀어 이르던 말로 이 지역의 모시[苧布]는 우수한 품질로 명성을 획득하며 전국 각지로 유통되었다.

본 논문은 원재료인 모시풀의 생육조건과 모시풀 재배 및 생산지역 분포, 산지 재료와 기술의 발달에 중점을 두고 저산칠읍 모시제작기술의 특징을 시론적으로나마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모시풀의 생육조건과 근현대 기후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저산칠읍 지역이 기후 및 지리적으로 모시풀 생육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연구보고서 및 근대 문헌 자료를 통해 산지 재료의 특성에 적합한 기술이 발달, 재료가공을 포함한 제작 관련 기술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사(原絲)를 만드는 제사(製絲)기술은 저산칠읍의 고품질 모시를 제작하는 핵심적인 기술이었다. 호서지역 제작자들은 산지 재료를 가공하며 축적된 제작 경험으로 완성품과 그 재료 품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가졌고, 산지별 재료의 특성과 관계없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가공기술을 공유, 전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 孔相喜,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gloomndream@gmail.com

투고일: 2021. 11. 14. 심사완료일: 2021. 12. 15. 게재확정일: 2021. 12. 22.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1..71>

저산칠읍 모시제작기술은 재료 생육에 적합한 기후 조건, 그에 따른 재료의 특성, 이를 가공하는 기술이 특정한 지역을 근간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공예의 구성 요소인 재료와 기술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모시, 모시풀, 저산칠읍(苧産七邑),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재료와 기술, 제사(製絲)기술, 생육 조건과 기후

## I. 머리말

모시는 모시풀(苧麻)의 줄기에서 인피섬유를 채취, 가공하여 제작한 직물로, 삼베(麻布)와 함께 고대부터 인류의 생활에 이용된 공예품이다. 까슬까슬한 특유의 촉감과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특성 때문에 의복 소재로 애용되었을 뿐 아니라, 정교하고 고운 직물의 우수성으로 대외교역품 및 조세품으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모시가 많이 생산되는 충청남도 서남부의 일곱 읍을 통칭하는 ‘저산칠읍(苧産七邑)’에서 생산된 모시[苧布]가 우수한 품질로 명성을 획득하며 전국 각지로 유통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산의 모시제작기술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한산세모시짜기’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모시’하면 ‘한산(韓山)’을 떠올릴 만큼 지역과 공예품에 대한 인식 또한 고착되어 있다.

모시에 관한 연구는 출토 복식 유물과 문헌을 대상으로 한 직물 및 복식사 분야 관련 연구<sup>1)</sup>,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모시와 그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다.<sup>2)</sup> 특히 한산모시는 내력과 제작기술에

---

1) 민길자·이순미, 「우리나라 직물제작기술에 대한 연구(I)-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대마와 저마직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8(2), 1984; 박윤미, 「자운사 불보장직물의 특성」, 『아시아조형학회』 Vol.9 No.1, 2011; 박윤미, 「백제 직물의 특성과 직조 기술」, 『백제학보』 제12호, 2014.

2) 김길순, 「忠南 韓山 모시의 生産實態」, 『綠友會報』 제3호, 1961; 김성희·조효순, 「우리

관한 연구 외에도 한산모시짜기 전승과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sup>3)</sup>, 한산모시의 재료인 모시풀의 생육조건에 관한 지리적 연구<sup>4)</sup> 등이 직물 및 복식학, 민속학, 지리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그에 비해 저산칠읍 모시와 그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날 모시를 제작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재료인 모시풀의 생육조건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제작기술의 전승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부지역의 기후 조건이 모시풀 생육에 적합하여 충청남도뿐 아니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지에서도 모시가 생산되었다. 그럼에도 왜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의 일곱 읍이 유독 모시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특화되었을까? 저산칠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품질의 모시를 제작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본 논문에서는 그 요인을 모시풀의 생육조건과 기후, 재료와 기술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시대 모시풀 및 모시 생산지를 살피고, 모시풀의 생육조건을 한반도의 기후와 함께 비교, 검토해 보겠다. 이와 함께 사서(史書)의 기록을 통해 저산칠읍의 형성 시기와 성격을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저산칠읍 모시제작기술의 특징을 20세기 초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 실행된 과학적 시험 분석 조사 자료를 통해

---

나라 苧麻 공예와 한산모시 길쌈에 대한 재고찰, 『한복문화』 3(3),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산모시짜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이계요, 『한산모시의 명성 정착화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심연옥, 『한산 세모시짜기 청양 춘포짜기-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 25호-』, 민속원, 2011; 박윤미, 「한·중·일 전통 모시 직조의 비교 고찰」, 『한복문화』 18(1), 2015.

3) 황경순, 「한산모시짜기 보호의 주체로서 지역공동체의 역할」,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4, 2014; 노영미, 「한산모시짜기 전승지식의 변화」, 『비교민속학』 56, 2015.  
 4) 김설지, 「남한에 있어서 苧麻栽培의 地理的 限界」, 『지리학논총』 제2호, 1972;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한홍렬, 「韓國 苧麻 手工業의 地理的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舒川 地域을 中心으로-」, 『지리학연구』 제29호, 1997.

살펴보겠다.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는 일제강점기의 유일한 공업 연구·조사 기관으로, 조선의 공업과 공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사무를 관장했다.<sup>5)</sup> 특히, 조선의 전통적 가내수공업을 연구 대상에 포함, 조사 및 시험 연구를 실시하여 식민지 시기 동안 총 200여 편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조선 후기 저산칠읍 모시에 대한 제작기술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시험소의 과학적 실험 결과를 통해 저산칠읍 모시제작기술의 특징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Ⅱ. 조선시대 모시 생산지와 저산칠읍의 형성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모시가 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문헌 기록과 현전하는 복식 및 직물의 편을 통해 고대부터 모시를 제작,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에 “한 사람은 집에 재물이 넉넉하여 사치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항상 삼베와 모시로 스스로 즐거워했다.”<sup>6)</sup>이라는 기록을 통해 삼[麻]과 모시풀을 재배하고 이를 통해 직물을 제작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신라에서 당나라에 보낸 진상 물품 내역에 “三十升紵衫段四十匹”<sup>7)</sup>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뛰어난 모시제

5)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에 관한 연구로는 최공호, 「官立工業傳習所 연구」, 『한국근대 미술사학』 제8호, 2000; 이태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위상 변화: 수공업기술 연구기관에서 자원조사 및 개발연구기관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엄승희, 「일제강점기 관립 중앙시험소의 도자정책 연구」, 『미술사학 연구』 제267호, 2010; 이태희, 「제국 일본의 공업시험연구체제와 191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공업화 전략」, 『역사와 문화』 제25호, 2013 등이 있다. 기타 자료집 성격의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130년史』, 국가기술표준원, 2013이 참고 된다.

6) 『三國史記』新羅本紀 憲安王 4年 9月조. “一家富於財, 可以侈衣服, 而常以麻紵自喜.”

7) 『三國史記』新羅本紀 景文王 9年 7月조.

작기술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문헌기록인 『계림유사(鷄林類事)』에서는 ‘苧布曰毛施背’라 하여 당시 ‘저포(苧布)’를 ‘모시배(毛施背)’라고 지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sup>8)</sup> 송나라 사신 서궁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농민과 상인의 복식은 모두 흰 모시(白紵)로 된 겹옷(袍)에 네 가닥 띠가 있는 오건(烏巾)을 쓰는데, 배(布)가 곱고 거친 것으로만 구별한다. 고위 관료(國官)나 귀인(貴人)도 퇴근하여 사가에서 생활할 때면 역시 이를 입는다.”<sup>9)</sup>는 기록을 통해 당시 의복의 재료로 모시가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백저포(白苧布), 문저포(紋苧布), 세저포(細苧布) 등 색상과 무늬, 섬세도에 따른 다양한 모시도 제작되었다.

[표 1] 고대 문헌의 모시(紵) 기록 (민길자, 『한국전통직물사 연구』, 한림원, 2000, 18쪽 표 편집·인용)

시대	종류	용도	출전
高麗	紵(苧)	衣服, 衣服材料, 追徵, 下賜	宋史(高麗條), 鷄林類事, 高麗史(世家卷第二十八忠烈王一, 世家卷第二十九忠烈王七)
	紵布	外國官員에게 下賜, 交易, 品質表示, 互市, 贈物, 不賜, 貢物, 外敵의 討索, 物物交換, 手巾, 佛家供養, 徵收物	三國遺事(卷第三塔像卷四), 高麗圖經(第三卷 城邑貿易), 高麗史(世家卷第二惠宗二, 世家卷第二十明宗二, 世家卷二十三高宗二, 世家卷二十四高宗三, 世家卷二十八忠烈王一, 世家卷第三十四忠烈王七, 世家卷三十五忠肅王八, 世家卷第四十四恭愍王七, 志卷三十三食貨二)

8) 『說郛』卷55 『鷄林類事』, “苧布曰毛施背”

9) 『宣和奉使高麗圖經』卷19 백성[民庶]

	白紵	庶民衣料, 婦人服, 賤具材料, 賤衣材料	高麗圖經(第一八卷道教, 第十九卷民庶, 第二十三卷雜俗二土產, 卷二十九卷供張二緯杭)
	白紵布	貢物, 旅費, 下賜, 移徙의 農具費, 徵收物	高麗史(世家卷第二十五元宗一, 世家卷第三忠烈王三, 志卷三十三食貨二料, 志卷三十六兵二, 列傳卷二忠烈王二)
	細紵布	貢物, 下賜, 細紵布收劍	高麗史(世家卷第二惠宗, 志卷三十二食貨一貢賦, 志卷三十六兵二站驛)
	紋紵布	元紋紵布求, 紋紵布貢除	高麗史(世家卷第十七忠穆王, 世家卷第三十九恭愍王)
	織紋紵布	貢物, 要求	高麗史(世家卷第三十五忠肅王二)
	紗紵布	貢物	高麗史(世家卷第六靖宗)
	三十升紵衫段	貢物	三國史記(新羅本記)

조선시대 들어서도 모시는 생활에 주요한 공예품이자 대외 교역품으로 꾸준히 제작되었고, 바람이 잘 통하고 가벼운 직물 특성으로 여름용 용포(龍袍)로까지 사용되었다.<sup>10)</sup> 이와 같은 모시의 제작과 사용의 전제(前提)는 원료의 재배와 재료의 생산으로, 조선 전기 모시의 재배와 생산 가능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지역 물산이 토의(土宜), 토공(土貢), 토산(土產), 약재(藥材)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다. 특히, ‘土宜’條에는 해당 군현에서 재배에 적합한 식물을 기록하였으며, ‘土貢’條에는 해당 군현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가운데 중앙에 공납하는 물품을 기록하였다.<sup>11)</sup>

10) 김용숙, 「李朝後期 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아시아여성연구』 5, 1966, 178쪽.

11) 박종기,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所 生産體制」, 『한국학논총』 vol.35, 2011, 54쪽  
 에는 완성형 생산품인 ‘종이’와 그 원료인 ‘닥나무’를 예로 세종실록지리지의 ‘土宜’

『세종실록지리지』에 ‘苧’가 기록된 지역은, 청저(靑苧) 1곳, 생저(生苧) 1곳을 포함하여 총 41곳으로, 당시 총 334개 행정구역 중 약 12%에 해당했다.<sup>12)</sup> 그중 30곳은 ‘土宜’條에, 나머지 11곳은 ‘土貢’條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된 41곳의 지역 중 약 85%가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해당된다(표 2).

[표 2] 『세종실록지리지』의 ‘苧’ 기록 지역

지역명		품목	條	
충청도 (13)	공주목	임천군	苧	토의
		한산군	苧	토의
		서천군	苧	토의
		남포현	苧	토의
		비인현	苧	토의
		정산현	苧	토의
		홍산현	苧	토공
		석성현	苧	토공
		부여현	苧	토의
	홍주목	홍주목	苧	토공
		서산군	苧	토의
		해미현	苧	토의
		청양현	苧	토의

條와 ‘土貢’條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12) 『세종실록지리지』의 세부 행정구역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길	황해	합계
부	0	0	1	1	0	1	1	0	4
대도호부	1	0	1	0	0	1	1	0	4
목	1	1	3	2	4	2	1	2	16
도호부	4	8	6	4	0	4	9	3	38
군	7	6	15	12	11	26	8	7	92
현	11	24	40	37	40	13	1	12	180
합계	24	41	66	56	55	47	21	24	334

전라도 (22)	전주부	전주부	苧	토공
		익산군	苧	토공
		김제군	苧	토공
		금구현	苧	토의
		만경현	苧	토의
		임피현	苧	토공
		옥구현	苧	토공
		함열현	苧	토의
		용안현	苧	토의
		부안현	苧	토의
		태인현	苧	토의
	나주목	여산현	苧	토공
		해진군	苧	토의
		영광군	苧	토의
		함평군	苧	토의
	남원도호부	장성군	苧	토의
		순창군	苧	토공
	장흥도호부	보성군	苧	토의
		능성현	苧	토의
		창평현	生苧	토공
		진원현	苧	토의
		담양도호부	苧	토의
경상도 (2)	진주목	의령현	苧	토의
	상주목	성주목	靑苧	토의
황해도 (2)	해주목	웅진현	苧	토의
		강령현	苧	토의
강원도 (2)	강릉대도호부	강릉대도호부	苧	토의
	삼척도호부	삼척도호부	苧	토의

조선 후기 모시의 생산은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지도서』는 공식적인 간행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18세기 전국적인 지리지 간행을 목적으로 편찬되어 조선 후기 각 고을의 사회상 및 경제 상황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sup>13)</sup> 특히, 각 고을의 현황을 소개하며 물산(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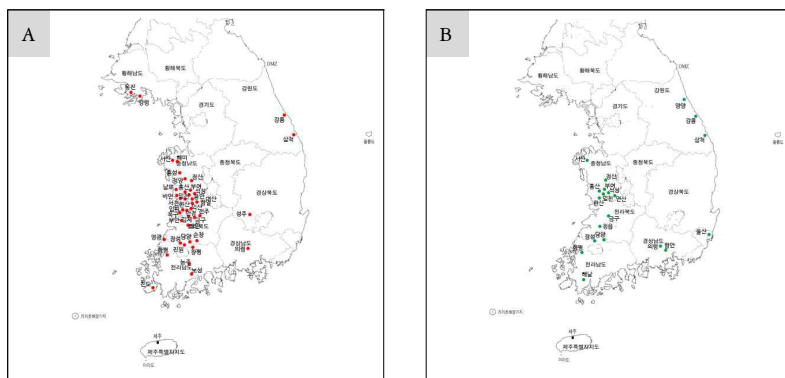
産)과 진공(進貢)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物産’條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당시 각 지역의 생산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표 3).

[표 3] 『여지도서』의 ‘苧’ 기록 지역

지역		물산	지역		물산
충청도 (8)	임천	苧	전라도 (6)	해남	苧
	한산	苧		담양	苧
	서산	苧		금구	苧
	홍산	苧		정읍	苧
	연산	苧	경상도 (3)	함안	苧
	부여	苧		울산	苧
	석성	苧		의령	苧
	정산	苧	강원도 (3)	삼척	苧
장성	苧	양양		苧	
함평	苧	강릉		苧	

『여지도서』에는 전체 331개의 지역 중 약 6%에 해당하는 20곳에서 모시를 생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4)15)</sup> 『여지도서』에 모시가 기록된 지역이 앞서 살펴본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그 수가 약 절반가량 감소하긴 했으나, 기록된 생산지역의 70%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해당, 조선 전기와 비슷한 지역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

13) 전상욱, 『輿地圖書에 나타난 進上 관련 조항의 분석』, 『문화재』 제44권 제3호, 2011, 151쪽.  
 14) 충청도 이산현과 전라도 태인현의 경우, ‘物産’條에 ‘苧’와 함께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생산지역에서 제외하였다.  
 15) 『여지도서』의 세부 행정구역 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세종실록지리지』(A)와 『여지도서』(B)의 ‘苧’ 기록 지역

이처럼 조선시대 모시품의 재배와 생산, 이를 이용한 모시의 제작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시품의 생육조건과 관련이 있다.

모시(苧布)의 재료인 모시풀은 모시, 저마(苧麻)라고도 불린다. 쟈기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모시풀의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지에는 야생 모시풀이 자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열대로부터 온대 북부지방까지 분포되어 있다.<sup>16)</sup> 오늘날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이 주요 생산지다.

구분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합계
부	6	7	6	9	1	17	14	3	63
대도호부	0	0	2	0	0	0	0	0	2
목	1	2	3	4	3	2	1	2	18
도호부	1	2	10	0	0	0	4	2	19
군	6	11	12	10	12	12	2	7	72
현	12	13	38	34	38	11	2	9	157
합계	26	35	71	57	54	42	23	23	331

16) 김희태·박찬호·손세호, 『新稿 工藝作物學』, 향문사, 1976, 85쪽, 90쪽.

모시풀은 여름철의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곳이면 겨울철에 상당히 추운 지방이라도 재배가 가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양토 또는 사질양토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7)</sup>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표 4] 모시풀의 생육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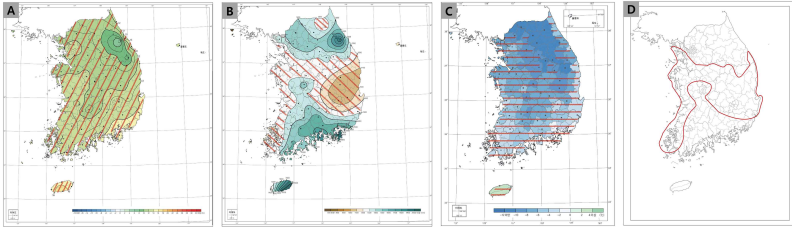
구분	조건
기온	생육 적온 20~24℃
	연평균 최소 10.5℃ 이상
	1월평균 최저기온 -10℃ 이상
강수량	연평균 1,000mm 이상

기후로, 기온과 강수량, 1월 평균 최저기온이 매우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러해살이풀의 특성상 겨울철 뿌리의 끝부분이 동해(凍害)를 받기 쉬우므로, 겨울철 기온이 일정한

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sup>18)</sup> 따라서 모시풀의 생육에는 연평균 기온 10.5℃가 최소한 필요하며, 1월 평균 최저기온은 -10℃ 이상, 줄기의 생장이 활발한 4-9월의 평균기온은 20~24℃을 유지하는 곳이 좋다.<sup>19)</sup> 또한 짧은 기간에 왕성한 생육이 이뤄짐에 따라 고온과 함께 많은 수분이 필요하므로 연강수량 1,000mm 이상이 전체 생육기간에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sup>20)</sup>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간한 『1981~2010 한국기후도』는 우리나라 기후의 표준값인 기후평년값(1981~2010년)을 근간으로 지역별 기후특성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sup>21)</sup> 이를 기준으로 모시풀 생육에 적합한 기온과 강수량, 1월 평균 최저기온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17) 김희태·박찬호·손세호, 위의 책, 90-91쪽 참고.  
 18)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4, 220쪽 참고.  
 19) 김연옥, 위의 책, 220쪽.; 김설지, 「남한에 있어서 苧麻栽培의 地理的 限界」, 『지리학논총』 제2호, 1972, 51쪽 참고.  
 20) 김희태·박찬호·손세호, 위의 책, 91쪽.  
 21) 기상청, 『1981~2010 한국기후도』, 기상청, 2012, i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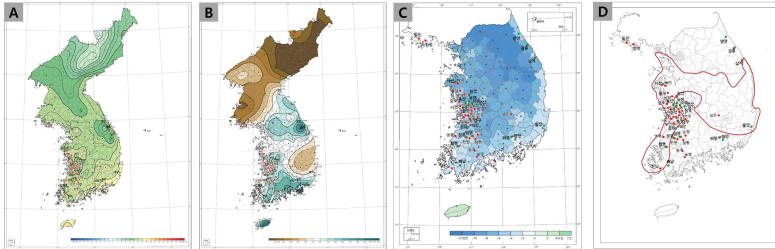
[그림 2] 모시풀의 생육조건과 생육적합지역

(A: 기온 적합지역, B: 강수량 적합지역, C: 1월 평균 최저기온 적합지역,  
D: A, B, C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모시풀 생육가능지역)

[그림 2D]에서 알 수 있듯이 모시풀 생육에 적합한 지역은 서해안 인근의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와 동해안 인근의 강원도 일부 및 경상남북도, 내륙의 충청남북도 지역이다. 이처럼 모시풀은 특정 기후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재배 및 생산이 가능하고, 적합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지역의 위치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모시풀 재배 및 모시 생산지역을 『1981~2010 한국기후도』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연평균 기온 11~14℃, 연평균 강수량 900~1500mm, 1월 최저 평균기온 -8~-2℃에 해당하는 지역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더불어 앞서 지도로 살펴본 모시풀 생육가능지역(그림 2D)에도 조선시대 모시풀 재배 및 모시 생산지역이 대부분 해당됨을 알 수 있다(그림 3D).

22) 『1904~1954 기상연보』에 작성된 기후도에 비해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수량, 1월 최저 평균기온의 폭이 줄어든 것은 북한 지역의 기상관측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 기후평년값(1981~2011) 기준 조선시대 모시풀 및 모시 생산지역 분포  
 (A: 연평균 기온, B: 연평균 강수량, C: 1월 평균 최저기온,  
 D: 모시풀 생육가능지역)

조선시대 모시풀 재배 및 모시 생산지역이 기후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54년까지의 기상관측자료를 정리한 『1904~1954 기상연보』<sup>23)</sup>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04~1954 기상연보』는 20세기 전반 50년간의 누적평균값 기준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강우량, 1월 평균 최저기온 등의 기후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904~1954 기상연보』에 수록된 기후도를 살펴보면, 1905~1954년간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2~14°C의 분포를 보이며,<sup>24)</sup> 연평균 강우량은 600mm 이하~1500mm 이상까지로 나타나고 있다.<sup>25)</sup> 1월 평균 최저기온은 -28~2°C까지의 분포를 보이는데,<sup>26)</sup> 각각의 기후도에 조선시대 모시풀 재배 및 모시 생산지역을 표시해 보면 연평균 기온은 10~12°C, 연평균 강우량은 1000~1400mm, 1월 평균 최저기온은 -10~0°C 지역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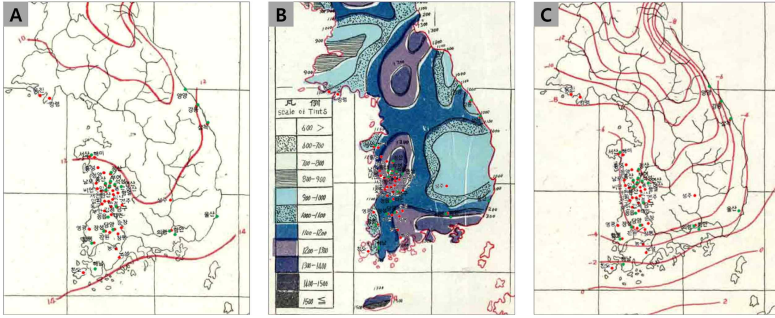
23) 기상청, 『1904~1954 기상연보』, 기상청, 1956;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는 이 자료를 『기상연보(氣像年報) 50년』으로 지칭하고 있다.(<https://www.weather.go.kr/w/typhoon/basic/info1.do>)

24) 기상청, 위의 책, 第1圖 Fig1.

25) 기상청, 위의 책, 第6圖 Fig6.

26) 기상청, 위의 책, 第4圖 Fig4.

수 있다(그림 4).



[그림 4] 1904~1954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수량, 1월 평균 최저기온과  
조선시대 모시풀 및 모시 생산지역 분포

(A: 연평균 기온, B: 연평균 강수량, C: 1월 평균 최저기온)

앞서 살펴본 모시풀의 생육조건과 『1904~1954 기상연보』, 『1981~2010 한국기후도』에 적용한 조선시대 모시풀 및 모시 생산지역의 기후값을 종합적으로 비교,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모시풀의 생육조건과 『1904~1954 기상연보』, 『1981~2010 한국기후도』에  
적용한 조선시대 모시풀 및 모시 생산지역의 기후값

구분	모시풀 생육조건	『1904~1954 기상연보』	『1981~2010 한국기후도』
연평균 기온	10.5℃ 이상	10~12℃	11~14℃
연평균 강수량	1000mm 이상	1000~1400mm	900~1500mm
1월 평균 최저기온	-10℃ 이상	-10~0℃	-8~2℃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1904~1954 기상연보』와 『1981~2010 한국기후도』에 적용된 조선시대 모시풀 및 모시 생산지역의 기후값에는 차이가 존재한

다. 조선시대 모시풀 재배 및 모시 생산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고정값이다. 그에 비해 기후는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1904~1954 기상연보』와 『1981~2010 한국기후도』에 적용된 조선시대 모시풀 재배 및 모시 생산지역의 기후값 또한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모시풀은 온난한 기후에서 잘 자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한국, 일본, 중국에서 재배되었다는 백엽종의 경우, 온대지방에 잘 적응한다는 점<sup>27)</sup>, 농학 및 식물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시풀의 생육조건이 현재의 상승된 기후값에도 모두 부합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 모시풀을 재배하는 지역이 모시의 생육조건에 부합하는 충남, 전북, 전남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된 기후값이 현재까지는 모시풀의 생육가능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기후값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20세기 전반기의 기후도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의 기후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모시풀 재배 및 모시 생산지역 분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재료인 모시풀은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조선시대의 모시풀 및 모시 생산은 원재료인 모시풀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후 및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충청도 지역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저산칠읍’이라는 주산단지(主産團地)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산칠읍이라는 용어는 18세기 후반부터 사서(史書)에 등장하는데, 17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처음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1년에 봉상목(捧上木)은 얼마이고, 돈이 얼마나 되는가?  
이기(李夔)가 아뢰기를, 경기도는 순전(純錢)이고 강원도는 영동의 9개 읍과

27) 김희태·박찬호·손세호, 앞의 책, 1976, 89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모시풀’ 참고.

평창(平昌), 정선(旌善)은 순포(純布)로 상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순전(純錢)입니다. 전라도는 운봉(雲峰)과 장수(長水)는 순포(純布)로 상납하고, 황해도의 명주를 생산하는 4개 고을과 홍충도의 모시를 생산하는 7개 고을(洪忠道苧產七邑)은 일찍이 생산되는 명주와 모시를 상납(上納)하게 하니, 민폐(民弊)로 인해 혁파한 뒤에 모두 순전으로 상납하고, 이 밖에 여러 도(道)의 여러 고을은 무명과 돈을 절반씩 섞었습니다.<sup>28)</sup>

위의 기록 중 ‘洪忠道苧產七邑’이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저산칠읍이 충청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787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의 기록을 통해서도 당시 저산칠읍의 모시가 지역의 명산품이자 재화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상품(商品)으로 타 지역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저포전(苧布廩)의 시민(市民)은 ‘근래 난전(亂廩)이 극심한 가운데 모시(苧)가 생산되는 7개 읍(苧產七邑)은 사부(士夫)의 농장이 아닌 곳이 없고 시골의 사나운 무리가 아무 택(宅)의 무역이라 핑계 대고 마구 도거리 잡아 곁체에 실어다 놓고 멋대로 마구 판매하여 저자가 파탄이 될 지경에 이르게 하니 각별히 엄중 신칙해서 보존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sup>29)</sup>

저산칠읍의 구체적인 지명은 1835년 『각사등록(各司謄錄)』 「충청도감영장계등록(忠淸道監營狀啓謄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서천, 한산,

28) 『승정원일기』 정조5년(1781) 9월 21일: “上曰, 一年捧上木, 幾何, 錢幾, 何? 夔曰, 京畿道則純錢, 江原道則嶺東九邑及平昌·旌善, 以純布上納, 其餘則皆是純錢。全羅道則雲峰·長水, 以純布上納, 黃海道袖產四邑, 洪忠道苧產七邑, 曾以所產袖苧上納, 因民弊革罷後, 皆以純錢上納, 此外諸道諸邑, 木錢參半。”

29) 『비변사등록』 정조11년(1787) 1월 1일(음): “苧布廩市民, 以爲近來亂廩熾盛之中, 苧產七邑, 無非士夫農莊, 而鄉曲頑悍輩, 假托某宅貿易, 狼藉都執, 輸置廊底, 恣意亂賣, 將至罷市之境, 各別嚴飭, 俾蒙保存之澤云.”



임천, 남포, 비인, 부여, 홍산의 7개 읍을 저산칠읍으로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천, 한산, 임천, 남포, 비인, 부여, 홍산 등 저산칠읍은 모시 농사가 흉년이 든 것이 전에 비해 심하여 군포를 모시로 수납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sup>30)</sup>

이와 함께 서천이 포함된 7개 읍에서 군포로 바치던 모시를 전(錢)으로 대전하게 하지는 고종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충청도의 저산칠읍이 19세기까지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이 장계(狀啓)하여 아뢰기를, ‘목화 농사가 몹시 흉작이 된 도내(道內)의 각읍(各邑)에서 병조(兵曹) 및 각 영문(營門)에 바치는 각 군포(軍布)를 목(木)으로 바칠 몫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절반을 대전(代錢)하고, 서천(舒川) 등 7개 고을에서 바치는 각 군포를 저(苧)로 바치는 것도 내년 가을까지 전(錢)으로 대전하게 하며, …<sup>31)</sup>

위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늦어도 1780년대에는 모시의 생산지로 구성된 ‘저산칠읍’이라는 집중적인 생산 구역, 즉 주산단지(主産團地)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지역은 서천, 한산, 임천, 남포, 비인, 부여, 홍산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이 생산지역이 19세기 말까지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산단지의 형성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료와 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 생산량과 품질 면에서 특화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생산된 모시는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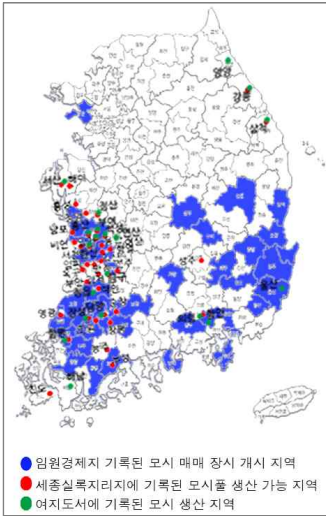
30) 『각사등록』 7 忠淸道篇 2 忠淸道監營狀啓臚錄 9 乙未九月十八日(1835). “舒川·韓山·林川·藍浦·庇仁·扶餘·鴻山等苧産七邑, 苧農被歉, 比前有甚, 軍布之以苧收納, 萬無其路。”

31) 『고종실록』 卷28, 고종28년(1891) 12월 18일. “議政府啓: “忠淸監司趙秉式狀陳‘綿農慘覿, 道內各邑各軍布之兵曹及各營門所納, 以木上納條, 自今年十月至明年九月限, 折半代錢, 舒川等七邑各軍布, 以苧上納者, 亦許限明秋以錢代納, …”

후기 장시 및 도로의 발달과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며 명산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6]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모시 매매 시장

지역	장시명	개시일	수	지역	장시명	개시일	수	
호서	부여	읍내장	3, 8	호남	옥과	읍내장	4, 9	
		은산장	1, 6		정읍	읍내장	2, 7	
	홍산	읍내장	2, 7		고창	읍내장	3, 8	
		신기장	1, 6		무장	읍내장	1, 6	
	임천	읍내장	5, 10		함평	읍내장	2, 7	
		읍내장	3, 8		영남	대구	읍내장	2, 7
	비인	중천장	1, 6	경주		부내장	2, 7	
		판교장	5, 10	안동		부내장	2, 7	
		대천장	4, 9	창원		부내장	2, 7	
	남포	양치장	1, 6	상주		주내장	2, 7	
		읍내장	1, 6	진주		주내장	2, 7	
	한산	신장	3, 8	울산		부내장	5, 10	
		장등장	4, 9	영해		부내장	2, 7	
부내대장		2, 7	밀양	부내장		2, 7		
호남	전주	부내소장	4, 9	영남		인동	부내장	2, 7
		읍내장	2, 7/4, 9			거제	부내장	4, 9
	광주	부동장	2, 7			거창	부내장	1, 6
		공수장	4, 9			청도	성내장	5, 10
	남원	부내장	4, 9		영천	읍내장	2, 7	
	장흥	부내장	2, 7		양산	읍내장	1, 6	
	장성	부내장	1, 6/4, 9		의성	읍내장	2, 7	
	여산	부내장	1, 6		남해	읍내장	4, 9	
	보성	읍내장	2		청하	읍내장	6	
	영암	읍내장	5, 10		칠원	성내장	3	
	영광	읍내장	3, 8		웅천	읍내장	4, 9	
	순창	읍내장	1, 6		해서	황주	서문외장	4, 10
	창평	읍내장	4, 9			웅진	동림장	1, 6
	임피	읍내장	2, 7	안악		군내하장	2	
	함열	읍내장	3, 8	평양		관전장	1, 6	



[그림 5]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모시 매매 장시 지역과 조선시대 모시풀 재배 및 모시 생산지역

19세기 초 자료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실린 1,052개 장시 중 모시를 매매하는 장시는 총 58개로 확인되는데, 홍미럽계도 이들 장시는 평양 등 일부 성읍에 위치한 시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모시풀 재배 및 모시 생산지에 위치한 시장이었다. 특히, 호서와 호남에 있는 모시 매매 시장은 거의 다 모시풀을 생산하는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이런 시장은 실제 모시 유통의 집산지 역할을 하였으며, 호서의 모시 매매 시장은 모두 ‘저산칠읍’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sup>32)</sup> 이와 함께 눈여겨볼 점은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호서와 호남지방의 모시 매매 지역은 모시 생산지와 비슷

32) 『임원경제지』에는 『각사등록』에 ‘저산칠읍’이라 지칭되어지는 지역 중 서천의 장시 기록이 없는데, 당시 서천 지역에 장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인지, 자료 작성 시 누락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1908년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서천의 시장이 기록되어 있는 바, 적어도 20세기 초에는 서천 지역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은 추측할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 「시적고(市穢考)」 3에 기록된 저산칠읍 지역의 장시는 다음과 같다.

지역	시장명	개시일	지역	시장명	개시일
서천	邑內	2, 7	부여	板橋	5, 10
	吉山	4, 9		邑內	3, 8
한산	邑內	1, 6		恩山	1, 6
	新場	3, 8		홍산	邑內
임천	邑內	4, 9	馬井		1, 6
	南塘	3, 8	老隱峙		3, 8
남포	大川	4, 9	臨水臺		1, 6
비인	邑內	3, 8	栗峙		5, 10
	鐘川	1, 6			

한 비율로 이뤄진 반면, 영남 지방의 모시 매매지는 생산지에 비해 그 개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영남지역이 일찍이 모시보다는 면포(綿布)가 발달한 지역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영남지역의 모시 매매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모시가 거래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는 당시 오일장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타지의 물품을 현지에서 유통시켰다는 사실과 함께 모시 직물의 수요가 생활필수품이 아닌 취향이 반영된 고급 소비품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듯 조선 후기 도로의 발달과 장시의 활성화에 따라 자가 수요를 목적으로 제작했던 모시는 농가의 수입을 창출하는 농가수입품목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산칠읍은 주산단지이자 특산지로 명성을 획득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Ⅲ. 저산칠읍 모시제작기술의 특징

저산칠읍의 모시는 20세기 초에도 충남 지역의 특산품으로 널리 유통되며 그 명성을 유지하였다. 1917년 7월 11일 『부산일보』 「四郡苧布品評會」 기사에서는 조선 저포의 산지를 충남 부여, 서천, 청양, 보령 4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sup>33)</sup> 1934년 1월 2일 『동아일보』 「특산 중 특산: 저포」 기사에서는 충남의 모시를 설명하며 ‘도내 어디를 물론하고 산출되지 않는 곳이 없으나 주로 서천군 한산을 중심으로 부여, 청양, 보령, 4개 군에서 많이 산출되는 데...’라고 기록하고 있다.<sup>34)</sup> 위 기사들에서 언급되는 서천, 부여, 청양, 보령 4군에는 저산칠읍에 해당하는 7개 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sup>35)</sup> 저산칠읍

33) 「四郡苧布品評會」, 『부산일보』, 1917. 7. 11.

34) 「특산 중 특산: 저포」, 『동아일보』, 1934. 1. 2.

35)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서천, 한산, 비인은 서천군으로, 부여, 임천, 홍산은 부여군으로, 남포는 보령군으로 통합되었다.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지역의 모시가 지속적인 명성을 유지했던 만큼 20세기 초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모시의 품질을 비교적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을 바탕으로 자국의 산업과 이해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의 분야를 토대로 공업화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 자원의 분석과 시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품의 품질을 관리하고자 하였다.<sup>36)</sup> 모시는 산업화를 통해 생산량 증대, 자국으로의 자원 조달 등이 가능한 이용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시험 분석이 이뤄졌다. 1928년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 발표한 「조선 마포의 품질과 제직 개량 표준(朝鮮向麻布の品位と製織改良標準)」은 그 결과보고서로, (이하 「보고」로 표기) 당시 생산된 삼베와 모시를 지역별로 수집하여 분석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sup>37)</sup>

모시의 경우, 충청도와 전라도 중 6개 지역의 모시를 선정하여 개량화를 위한 기초 분석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산지를 지정, 도청과 군청에 의뢰해 각 산지별로 상품(上品)과 중품(中品)을 한 필씩 구입, 수집하고, 생산 규격과 단가, 직물의 신도(伸度)<sup>38)</sup>와 강도 등 과학적 실험 분석을 진행하였다.<sup>39)</sup> 20세기 초 생산된 모시를 대상으로 실험·분석한 자료인 만큼 19세기 저산칠읍의 모시제작기술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관한 규정,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13. 12. 29.

36) 공상희, 『조선시대 섬마기술의 변천과 근대적 개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118쪽.

37) 1928년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 발표한 「조선 마포의 품질과 제직 개량 표준(朝鮮向麻布の品位と製織改良標準)」에서 지칭하는 마포(麻布)는 대마포(大麻布)와 저포(苧布), 즉 삼베와 모시를 총칭한 것이며, 보고서는 각각을 구분하여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3장과 4장에 조선산 모시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가 실려있다.

38) 늘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39) 공상희, 위의 논문, 119쪽.

[표 7] 1928년 도별 모시 생산 현황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朝鮮向麻布の品位と製織改良標準」,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第10回, 조선총독부, 1928, 79쪽.)

구분	저포(모시)	
	수량(필)	가격(엔)
경기도	11,143	37,886
충청북도	-	-
충청남도	317,759	1,562,731
전라북도	101,627	329,941
전라남도	65,661	243,188
경상북도	1,495	4,606
경상남도	25,938	52,134
황해도	-	-
평안남도	477	1,328
평안북도	-	-
강원도	45	278
함경남도	-	-
함경북도	97	720
합계	524,242	2,232,812

먼저 「보고」에 실린 ‘1928년 도별 모시 생산 현황’으로 당시의 모시 생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모시는 경기, 충남, 전라, 경상, 평남, 강원, 경북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특히 충남, 전북과 전남, 경남도 지역에 모시 생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전체 생산량의 약 60%, 전체 생산액의 약 70%를 차지하며 생산량과 생산액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조선 후기부터 형성된 저산칠엽이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그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7).

본 시험에 대상이 된 모시는 모시풀 섬유를 손과 이[齒]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찌고 이어 만든 수방저마사(手紡苧麻絲)로 제작한 모시로 중앙시험소에서

선정한 주요 생산지는 충청, 전북, 전남의 지역이었으며, 각 지역당 2종씩, 총 12종이었다. 총 12종의 모시는 구입 당시 정해진 품질에 따라 상품은 갑(甲), 중품은 을(乙)로 표시하였다(표 8).

[표 8] 실험 대상 모시 현황

지역 구분		지역명	품질	지역 구분		지역명	품질
충청도	충남	서천	甲	전라도	전북	정읍	甲
			乙				乙
		부여	甲			고창	甲
			乙				乙
		보령	甲		전남	장흥	甲
			乙				乙

중앙시험소에서는 모시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①원료 ②가격 ③길이 ④폭 ⑤중량 ⑥두께 ⑦두께 차이 ⑧1평방척 중량<sup>40)</sup> ⑨산정한 순번 ⑩밀도⑪ 수축률 ⑫호감률 ⑬강도 ⑬신도 ⑮마찰도의 15가지 항목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중 가격으로는 당시 지역별 모시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으며, 중량과 두께, 두께 차이와 1평방척 중량, 산정한 순번과 밀도로는 모시의 품질을 가늠해 볼 수 있다(표 9).

40) 1평방척(方尺)은 약 918.27cm<sup>2</sup>이므로 1평방척 중량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약 30.3cm인 직물의 무게이다.

[표 9] 조선산 저포 품위 시험 성적 일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朝鮮向麻布の品位と製織改良標準』,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第10回(조선총독부, 1928), 86-87쪽)

순번	품명	산지	가격 (1필엔)	길이 (m)	폭 (cm)	중량 (g)	평균 두께 (mm)	두께 차이 <sup>41)</sup> (mm)	1평방척 중량 (g)	산정 변수	밀도 (개)	
											경	위
1	서천甲	충남 서천	10.70	23.84	34.5	840	0.267	0.03	12.3	72	19	19
2	서천乙	충남 서천	9.20	24.71	34.5	1,080	0.316	0.09	15.0	62	18	21
3	부여甲	충남 부여	15.60	24.18	34.9	930	0.279	0.06	12.8	85	22	24
4	부여乙	충남 부여	7.20	23.76	34.5	1,220	0.338	0.07	19.9	40	16	18
5	고창甲	전북 고창	7.90	24.75	35.2	1,555	0.378	0.10	22.9	35	16	18
6	고창乙	전북 고창	6.00	24.71	34.5	1,670	0.422	0.10	25.5	31	15	18
7	정읍甲	전북 정읍	7.20	24.94	36.4	1,552	0.373	0.09	22.1	40	20	17
8	정읍乙	전북 정읍	5.80	25.20	34.9	1,754	0.390	0.09	26.6	29	16	16
9	보령甲	충남 보령	11.50	24.29	34.5	1,455	0.315	0.06	22.1	40	20	17
10	보령乙	충남 보령	8.60	24.75	34.5	1,609	0.336	0.04	23.6	38	20	18
11	장흥甲	전남 장흥	9.60	25.20	36.0	1,474	0.352	0.07	20.3	42	18	18
12	장흥乙	전남 장흥	7.36	24.60	36.4	1,635	0.381	0.09	21.8	37	17	17

「보고」에 기록된 가격은 1928년 4월에서 6월 사이 산지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대상 지역에서 모두 ‘갑’이 ‘을’보다 가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남권 세 지역의 평균 가격이 10.5엔이었고, 전라권 세 지역의 가격은 7.31엔으로 충남권의 모시의 가격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모시는 부여甲으로 1필당 가격은 15.60엔이었으며,

41) 두꺼운 곳과 얇은 곳은 차이를 측정된 것으로 실과 직물이 얼마나 고르게 만들어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숙련도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낮은 가격의 모시는 정읍乙로 1필당 가격이 5.80엔이었다. 이를 기록된 길이와 폭을 근거로 1m<sup>2</sup>당 가격(엔)으로 환산하면, 부여甲은 약 1.3엔, 정읍乙은 약 0.66엔으로 최고가의 모시와 최저가의 모시가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충남 지역 모시가 전라도 지역의 모시보다 높은 가치를 가졌을 뿐 아니라 고급품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필의 중량은 가장 가벼운 것이 서천甲으로 840g이었으며, 가장 무거운 것은 정읍乙로 1,754g이었는데, 서천甲 무게의 2배가 넘었다. 동일한 크기의 직물 편 의 무게를 측정 한 1평방척 중량 결과 역시 서천甲이 12.3g으로 가장 가볍고, 정읍乙이 26.6g으로 가장 무거웠다.

평균 두께와 두께 차이 역시 직물의 품질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 본 시험에서 가장 얇은 평균 두께는 서천甲의 0.267mm였으며, 가장 두꺼운 것은 정읍乙의 0.422mm였다. 두께 차이의 경우, 가장 두꺼운 부분과 가장 얇은 부분을 측정하고 이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모시는 0.03mm의 서천甲이었다.

이 분석 시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무엇보다 산정번수(算定番數)와 밀도를 조사한 내용이다. 산정번수는 직역하면 ‘계산해서 정한 번수’로, 번수(番手)는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수치가 커질수록 실의 두께가 가늘어진다.<sup>42)</sup> 밀도는 가로, 세로 1cm 내 포개진 실의 가닥 수를 말한다. 따라서 밀도가 높을수록 촉감은 부드러워지고 번수가 높을수록 원사(原絲)가 가늘어 짐을 의미한다. 「보고」에는 번수를 바디의 셋수[箒數]로 환산한 표를 제시하

42) ‘번수’는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마번수(麻番手)는 아마사(亞麻絲)·저마사(苧麻絲)·대마사(大麻絲)에 적용되며 현재 기준 중량이 1파운드(약 453g), 단위 길이는 300야드(약 274m)로 정의하고 있다. 「보고」에서는 수방사(手紡絲)는 그 차이를 나타내는 번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의 식에 의하여 경위평균번수를 산정한다고 하며,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보고」에 제시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算定番手} = \frac{\text{布1方尺間にある經緯絲の長差} \times 121}{724.2 \times \text{1方尺重量(匁)}}$$

고 있어 분석 대상 모시의 품질을 가늠해 볼 수 있다(표 10).<sup>43)</sup>

[표 10] 경사 변수와 성수(箄數)

경사 변수	성수 (1정척 당)
104 - 90	13 - 12
90 - 76	12 - 11
76 - 63	11 - 10
63 - 51	10 - 9
51 - 41	9 - 8
41 - 32	8 - 7
32 - 24	7 - 6

시험 결과를 보면, 12종의 분석 대상 모시 중 6-7세에 해당하는 모시가 2종, 7-8세에 해당하는 모시가 6종, 8-9세와 9-10세에 해당하는 모시가 각각 1종, 11-12세에 해당하는 모시가 2종으로 분포했다. 7-8세에 해당하는 모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 평균적인 모시의 품질은 7-8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험에서 가장 낮은 산정변수는 정읍乙의 29이며, 가장 높은 것은 부여甲의 85로 이를 셋수로 환산하면 각각 6-7세, 11-12세였다. 저산칠읍 해당 지역의 모시를 살펴보면, 서천은 甲이 11-12세, 乙이 9-10세, 부여는 甲이 11-12세, 乙은 7-8세, 보령의 경우 甲과 乙 모두 7-8세였다. 서천과 부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품질의 모시를 생산한 반면, 보령의

43) 바디의 셋수는 옷감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폭에 몇 올의 날실을 거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모시베나 무명베, 삼베의 굵기를 가늠하는 단위와 바디의 단위가 일치한다. 한 폭 40cm 안에 80올의 날실이 걸리는 것이 기본단위가 되는 ‘한 새’이고, 한자어로는 ‘일성(一成)’이라 부른다(국립문화재연구소편, 『바디장』, 화산문화, 2002, 153쪽). 본 논문에서는 모시베의 굵기를 가늠하는 단위를 ‘새’로 지칭하였다.

경우, 당시 평균 수준 품질의 직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천의 경우, 상품인 甲과 중품인 乙의 성수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두 직물의 가격 차이 역시 1.5엔 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시의 품질과 이를 제작하는 기술력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여의 경우, 상품인 甲이 11-12새인 것에 비해 중품인 乙은 7-8새였다. 또한 두 직물 간의 가격 차이 역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상품과 중품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직물을 생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저산칠읍의 모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품질이 우수했다. 그러나 저산칠읍에 속한 지역이라 하여도 세부 지역에 따라 기술력과 제품 생산의 기준이 상이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는 보고서 말미에 위와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시의 품질 평가 기준을 중량, 두께 및 두께 차이, 일방척 중량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1).

[표 11]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모시 품등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중량	250匁 내외 (약 937.5g )	350匁 내외 (약 1312g)	450匁 내외 (약 1687g)
두께	0.28mm 내외	0.35mm 이내	0.4mm 이내
두께 차이	0.05mm 이하	0.08mm 이하	0.1mm 이하
일방척 중량	3.5匁 내외 (약 13.125g)	4.5匁 내외 (약 16.875g)	6匁 내외 (약 6.9182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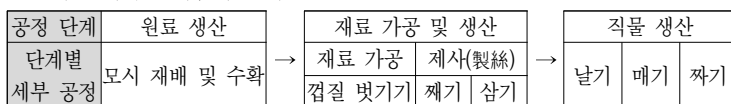
이 품등 기준을 살펴보면 품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중량과 두께, 두께 차이인데 중량의 경우 가벼울수록, 두께와 두께 차이는 얇고 그 차이가 적을수록 상품으로 보았다.

중량의 경우, 원사가 가늘고 가벼워야 중량이 적게 나가고, 두께의 경우,

원사가 가늘수록 직물의 두께가 얇아진다. 두께 차이 역시 원사의 굵기가 고를수록 차이가 적다. 결과적으로 원사를 만들어 내는 재료가공기술력이 직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모시의 제작공정<sup>44)</sup> 중 모시의 직접적인 재료가 되는 실을 만드는 제사공정, 즉 ‘모시 찌기와 삼기’는 질 좋은 모시를 생산하는 주요 과정으로 껍질을 벗긴 태모시를 얼마나 가늘고 섬세하게 잘 찌고 삼는가에 따라 모시의 품질이 결정된다. 때문에 이 과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으로, 작업자에 따라 그 기술과 요령이 조금씩 다르다. 공통적으로 모시를 앞니로 잘 꺾어서 찌는 요령과 찌는 사람의 침 성분 등 사람의 신체적 조건이 모시 질을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sup>45)</sup> 재료를 가공하고 직조의 직접적 재료가 되는 실을 만드는 제사기술이 직물의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기술인 것이다.

「보고」의 시험 결과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시험 분석을 통한 제작기준을 제시하기 이전에도 저산칠읍에 속한 서천과 부여 지역에서는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모시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서천과 부여 지역에서 생산된 모시가 다른 지역의 모시보다 원사를 가늘게 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이 지역의 우수한 제사기술은 무엇보다 산지 재료의 특성이 주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재배되어 오던 품종인 재래종 모시풀은 초장(草長)이 짧고 줄기가 가늘며, 마디의 수가 많은데, 섬유 수량은 적으나 섬유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6)</sup> 이와

44) 직물 제작 공정은 크게 원료 생산→재료 가공 및 생산→직물 생산(직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물의 원재료에 따라 제작공정에 차이가 있다. 그중 모시의 제작공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5)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산모시짜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44~45쪽.

46) 김희태·박찬호·손세호, 앞의 책, 1976, 90쪽 참조.

함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호서와 호남지방은 기온 및 강수량 등 기후가 모시풀의 생육조건에 적합하다. 그러나 모시풀의 생장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4-9월 간 호서와 호남의 일조량, 기온, 강수량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호남지방은 호서지방보다 기온이 더 높고, 강수량도 더 높은 반면, 호서지방은 1월 평균 최저기온이 호남지방보다 조금 더 낮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품종이 어도 성장에 영향을 주는데 실제로 호서지방의 모시풀이 호남지방의 모시풀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며, 빠르게 자란 호남지방의 모시풀은 키가 커서 길이가 긴 섬유를 얻을 수 있지만 섬유가 취약하다고 한다. 그에 비해 호서지방의 모시풀은 호남지방보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자라, 키는 호남지방에 비해 작지만 호남지방의 모시풀보다 더 질긴 섬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sup>47)</sup> 결국, 조금 더 추운 호서지방의 기후가 섬유의 인장강도를 높여 제작자로 하여금 가는 모시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산지 재료의 특성은 지역 내 제작자들의 기술력을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제작자들은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알맞은 재료가공기술을 발달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모시실을 만들기 위해 줄기에서 섬유를 추출하고, 이를 이[齒]와 손으로 찌는 과정을 통해 재료의 특성이 반영되고, 이에 맞게 고안된 제작자들의 기술은 더 가는 섬유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저산칠읍만의 세미(細美)한 모시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산칠읍의 모시 품질에 대한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더 많은 생산을 위해 20세기 초에는 호남지방에서 원재료를 수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 발간된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에는 ‘충청남도에서 임천군, 홍산군, 부여군, 석성군에서 저마 생산이 많았는데 근접한 각 군에서도 다소 재배되었다. 한산, 서천, 홍산, 비인, 임천, 정산, 남포 7군은 모시 직조가 주된 것이었다.……그러나 저마 재배가 많다고 반드시

47) 이계요, 『한산모시의 명성 정착화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57쪽 재인용.

모시 직조가 많은 것은 아니다. 한산군과 같은 경우 모시 생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시 원료가 대부분 전라북도의 임피, 만경 등의 군에 의지해야 한다.’라 하였고, 더불어 ‘전라도에서 저마가 야생으로 많이 자랐고 다소 재배한 것도 있다. 저마 직물은 전문적 농가의 부업에 속하여 충청남도 한산 및 전라북도에서 많이 생산된다.’라는 기록이 있다.<sup>48)</sup> 또한 1927년 출간된 이능화의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 따르면, ‘조선 모시에 한산산이 가장 좋으니, 한산모시라 한다. 오직 봄 여름의 옷감이다. 장성, 정읍 두 군데서도 모시가 나지만 그 원료는 다 한산군에서 실어다가 여공을 더하여 천으로 만든다.’라고 하였다.<sup>49)</sup> 이러한 20세기 초의 기록들은 호서지역의 제작자들이 인성이 강한 호서의 모시풀을 가공하며 숙련된 기술을 호남에서 생산된 모시풀에도 적용하여 고품질의 모시를 제작했음을 시사한다. 호서지역 제작자들은 산지 재료를 가공하며 축적한 제작 경험으로 완성품과 그 재료 품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형성하였고, 산지별 재료의 특성과 관계없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가공기술을 공유, 전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맺음말

전통사회에서 공예는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용품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재료와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공예는 세대를 거듭하며 발전해왔고, 시대의 생활양식을 반영하였다. 모시 역시 재료와 기술을 통해 생활의 편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시대의 미감을 표현하는 공예품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는 도로와 장시의 발달을 토대로 상업경제가 활성화되며 사회와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변화가 진행되던 시기로, 모시는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저산칠읍’

48) 山口精, 『朝鮮産業誌 上卷』, 寶文館, 1910, 472쪽, 532쪽.

49) 이능화 저, 김상익 역, 『조선여속고』, 동문선, 2009, 381쪽.

이라는 주산단지가 형성, 자급자족을 위한 기초생산품에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모시의 원재료인 모시풀의 생육조건을 한반도의 기후와 함께 검토하여 저산칠읍 지역을 포함한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모시 재배 및 생산지역이 지리적으로 모시풀 생육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료의 생산이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저산칠읍의 형성은 무엇보다 지리적 조건이 부합함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세한 환경 조건의 차이로 발생하는 재료의 특성이 제작기술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산지 재료에 적합한 기술이 발달, 재료가공을 포함한 제작 관련 기술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초 저산칠읍을 포함한 충남 지역의 모시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60%에 해당했는데 생산한 모시의 원료가 호남에서 수급됨에도 저산칠읍에 속한 서천과 부여 지역에서 9-11세의 모시를 제작했음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결국, 기존에 호서지방에서 생산된 모시풀에 적합하게 고안된 제작기술은 지역 내 제작자들 사이에 일정한 기준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기준은 재료의 특성이 달라져도 그대로 유지되며 제작자 간에 공유, 전승되었던 것이다.

저산칠읍 모시제작기술은 재료 생육에 적합한 기후 조건, 그에 따른 재료의 특성, 이를 가공하는 기술이 특정한 지역을 근간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재료와 기술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산칠읍에 관련한 문헌 용례를 더 폭넓게 살펴지 못해 용어의 규정이 다소 미흡한 점과 현전 유물 및 지역별 장인들의 증험을 통한 제작기술 분석을 실증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하며, 앞으로 재료와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各司謄錄』  
『鷄林類事』  
『高宗實錄』  
『備邊司謄錄』  
『三國史記』  
『宣和奉使高麗圖經』  
『世宗實錄地理志』  
『承政院日記』  
『輿地圖書』  
『林園經濟志』  
『增補文獻備考』

### 2.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바디장』, 화산문화,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편], 『한산모시짜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기상청, 『1904~1954 기상연보』, 기상청, 1956.  
\_\_\_\_\_, 『1981~2010 한국기후도』, 기상청, 2012.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4.  
김희태·박찬호·손세호, 『新稿 工藝作物學』, 향문사, 1976.  
민길자, 『한국전통직물사 연구』, 한림원, 2000.  
이능화 저, 김상익 역, 『조선여속고』, 동문선, 2009.  
山口精, 『朝鮮産業誌 上卷』, 寶文館, 1910.

### 3. 논문

- 공상희, 『조선시대 섬마기술의 변천과 근대적 개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0.



- 김설지, 「남한에 있어서 苧麻栽培의 地理的 限界」, 『지리학논총』 제2호, 1972, 149-204쪽.
- 김용숙, 「李朝後期 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아시아여성연구』 5, 1966, 51-59쪽.
- 박종기,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所 生産體制」, 『한국학논총』 vol.35, 2011, 49-74쪽.
- 이계요, 『한산모시의 명성 정착화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전상욱, 「輿地圖書에 나타난 進上 관련 조항의 분석」, 『문화재』 제44권 제3호, 2011, 150-163쪽.

#### 4. 보고서 및 신문기사

-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朝鮮向麻布の品位と製織改良標準」,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第10回, 조선총독부, 1928.
- 「특산 중 특산: 저포」, 『동아일보』, 1934. 1. 2.
- 「四郡苧布品評會」, 『부산일보』, 1917. 7. 11.

#### 5. 누리집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기상청(www.kma.go.kr)
-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RAMIE PRODUCTION AREAS IN THE JOSEON DYNASTY AND  
CHARACTERISTICS OF RAMIE PRODUCTION TECHNOLOGY IN  
JEOSANCHIL-EUP

KONG SANGHUI(KONG, SANG HUI)

Jeosanchil-eup was a word that reached all seven towns in southwestern Chungcheongnam-do, where ramie was produced a lot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ramie in this area gained a reputation for its excellent quality and was distributed nationwide.

This paper tried to investigate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ramie in Chil-eup, Jeosan, focusing on the correlation between materials and technology.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growth conditions of ramie grass and modern and modern climate data,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Jeosan Chil-eup area was a very suitable area for the growth of ramie grass climatically and geographically. In addition, through the research report of the Central Laborator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modern literature data, it was found that the technology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materials was developed. and the technology related to manufacturing, including material processing, was improved. In particular, the technology of making yarn was a key technology for producing high-quality ramie in Chil-eup, Jeosan. Hoseo local producers had a certain

standard for the quality of ramie fiber, which is formed through long-time production experience in the region.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e technology that can produce fibers that meet certain standards,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origin, was shared and transmitted.

Jeosanchil-eup ramie production technology is a useful example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materials and technology, which is a component of crafts, in that the clim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suitable for material growth,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nd the technology processing have developed based on a specific area.

Key Words : Ramie fabric, Ramie, Jeosan Chil-eup; The Seven Ramie Producing Counties, Government-General of Joseon, Central Laboratory of Industry, Materials and Technology, Technology of making yarn, Growth conditions and Climate